

기도

1.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당신은 무엇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2. 당신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니까?

신앙

바이블로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까지 내려오는 예수의 계보를 통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구약성경 구절을 상세하게 사용하며, 대부분을 “이는~을 이루어 하심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사복음서 가운데 여러 면에서 가장 유대적이다.

구역 공과

2021년 11월 7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요한일서 3장 18-24절 (15장, 408장)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며,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되어서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13-17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18-20절).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18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행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고전13장), 진실함이 없는 행함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 안에 거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에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19절).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리에 속한 자가 됨을 가르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진리의 역사,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진리에 속해 마음에 가책과 부끄러움이 없음으로 주 앞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음으로 마음속에 책망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20절).

우리가 중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위로해 주시지만, 중심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21-24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21, 22절).

오늘 우리가 계명대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요일2:3; 5:14).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요15:10-12).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받을 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인도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24절). 성령께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